

완도 명사십리 '낮엔 해수욕장 밤엔 문화욕장' 트렌드 선도

낮에는 해양치유·건강증진...밤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문화향유 신우철 군수 "군민 문화욕구 충족 및 완도관광 콘텐츠로 발전 시킬 것"

완도 명사십리 해변이 낮에는 해수욕장, 밤에는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욕장'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를 선도하여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은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피해 낮에는 물놀이, 밤에는 음주와 야영 등 무질서한 행락문화로 인해 여가?휴양을 즐기기도 어려운 피서 후유증만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쉬웠다. 반면 완도군이 7월 31일부터 8

월 9일까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운영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전국 최초로 '문화욕장'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드넓은 백사장에 설치한 대형 멀티플렉스를 활용하여 낮에는 군정 홍보는 물론 영상 편지, 신청곡 방송 등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고 밤에는 추억의 영화 5편을 매일 차례대로 절찬리에 상영했다. 또한 7월 25일 전국 최초로 해변

에서 한차례 시범 운영한 자동차극장은 사전 예약 차량 120대에 386명이 관람하여 향후 완도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주간에는 지난 7월 24일부터 명사십리 백사장에서 필라테스, 노르딕워킹, 모래찜질, 다시마 마스크팩 체험, 명상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운영 중이며 8월 13일 현재까지 3천여 명이 체험에 참여했다.

특히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전국 대규모 해수욕장에 발동하는 '야간 백사장에 2인 이상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곳으로 자칫 들뜨기 쉬운 피서지 밤 문화를 멀티플렉스 프로그램이 차분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다양하게 시범 운영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전국 최초로 문화욕장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만큼 그 성과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향후 군민 문화욕구 충족 및 완도관광의 콘텐츠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해수욕장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관내 해수욕장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오는 8월 22일 폐장하고 물놀이대를 금지한다. 원도=김영일 기자

강진군 여행 "오늘은 어디에서 먹지?"...맛지도 제작 '눈길'

관광객 편의 제공 위해 주요 관광지 비치

남도담사 1번지 강진군에서는 최근 '맛집 탐방 지도'를 새롭게 제작해 지난 12일 배포를 완료했다. 지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강진 관내 음식점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내용은 강진군의 주요관광지 정보와 관광문의처, 숙박시설과 반나절, 하루, 1박 2일 여행코스 등 관광 정보가 다수 수록돼 있다. 무엇보다 단품요리 강진 맛집 지정음식점, 한정식, 횃집, 회춘탕 전문식당, 모범음식점까지 선

별된 군의 대표 음식점 75개소의 대표메뉴와 음식 사진, 가격, 아침식사 운영 여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군은 휴대하기 편한 접이식 지도로 4천 부를 제작해 가우도 관광안내소 등 주요관광지에 비치해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강진 맛집 탐방 지도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강진군청 모바일 페이지로 연동돼 방문객들이 강진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맛집 탐방 지도에 수록된 군 대표 음식점에 대해 맛과 친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순욱 군수는 "강진에는 한정식 외에도 여러 우수한 단품요리

음식점도 많다. 강진의 맛집들이 강진 관광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코로나로 지친 마음, 최신 영화관람으로 날리세요"

18~21일 영화주간 해남문화회관에서 최신영화 상영

해남군이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2020 해남군 영화주간 '영화로 GOGO!!'를 운영한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하는 영화주간은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최신 영화를 연속 상영하게 된다.

(반도), <강철비2: 정상회담>, <오케이 마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의 한국영화와 애니메이션 <슈퍼레이스>, <빅사크3: 젤리몬스터 대소동>, <짱구는 못말려: 신혼여행 허리케인> 등 8편의 최신 개봉영화를 선보인다. 다만 코로나 예방을 위해 1회 150석 한정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해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예매도 비대면으로 진행돼 문화N티켓 사이트와 해남문화예술회관 1층에 비치된 문화N티켓 키오스크에서



가능하다. 예매기간은 8월 14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영화 상영 하루 전 오후 5시까지이며, 인터넛으로 구매한 예매권은 상영 당일 1층 안내데스크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문화원, 마을문화 현장과 연대

교촌리 마을 방문 주민 격려

장흥문화원(원장 고영천)은 코로나19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 기념품과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등 문화연대를 펼치고 있다. 이번 문화연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생활이 권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고령화된 농어촌 마을의 주

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7일 고영천 장흥문화원장과 직원들은 '마을공동체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흥읍 교촌리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회관에서는 민요건강춤 수업과 한글문화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주민 30여명이 모여 아리랑 연창과 한글쓰기 공부에 한창이었다. 고영천 문화원장은 준비한 기념

품과 여름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면서 이들의 수업을 격려했다. 장흥문화원은 중요 사업들이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 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의 행간에 마을 단위의 주민들과 문화적 연대를 하면서 지역 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영천 장흥문화원장은 "앞으로도 마을단위 문화 행사를 개발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그 연대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대상 모집

강진군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운영이 중단됐던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 5인 이상 사업장,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을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하고 싶지만 시간적 제약 등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과 학교, 기관 등의 금연 결심자를 직접 찾아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